현대車, 외국인 유학생 초청 한국 문화체험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 개최
10년간 총 1만1000여명 다녀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현대기아차 사업장 등에서 18개 대학, 79개국의 정부초청 우수 외국인 유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인 유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려 우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적과 전공이 다른 유학생들을 하루 동안 함께 견학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유학생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고려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170명의 유학생이 31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총 1만1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에 초청했다. 올해는 5개 그룹 800명을 모집해 각각 예술, 역사, 음식, 한류, 전통문화 등 5가지 테마로 그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 그룹별 참가자들은 오전에 현대기아차 공장 및 현대모터스튜디오 등 현대기아차 사업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테마별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08년 vs 2018년

기자 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한 거. 경상수지도 좋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신흥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마치고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나와 간단히 브리핑을 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 국제금융과 외환시장을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이고 별 영향 없어요. 답변 이미 아시죠?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상황은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죠 뭐. 아, 컨틴전시 플랜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2018년의 얘기가 아니다. 2008년의 상황이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단골 멘트였다.

이런 장담이 무색하게 그리 튼튼하다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증시, 외환 등 금융시장을 말할 것도 없이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를 내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그때 알게 됐다. 우리 처럼 경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지금의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이 곧 기초체력이라는 것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10월 한 달 만에 26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것 없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순투자가 지속되던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대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상황은 예의주시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smahn1@metroseoul.co.kr

SK이노베이션 기업PR 캠페인 5000만뷰 돌파에 5000만원 기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15일 선보인 기업PR 캠페인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다섯 번째 편 론칭 후 조회수 5000만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는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 5000만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 영상은 유튜브 국문 조회수 1450만·영문 3500만·페이스북 28만 등 자사 SNS채널을 통해 SK이노베이션 기업PR 캠페인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기업PR 캠페인은 VR(가상현실) 기법을 접목해 SK이노베이션 해상광구, 전기차 배터리 등 각 사업영역을 허공에서 입체적 질감이 느껴지는 조형물로 표현해내며 시청자들로부터 "접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광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이노베이션 기업 PR 캠페인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9월 24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2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4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소 49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1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85년생 아침부터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호랑이 50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62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가끔은 있다. 74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미덕이다. 86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빛날 수 없다.

토끼 5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3년생 확실한 복수는 상대를 완벽히 잊어 주는 것. 75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87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용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하다. 64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76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8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을 해야 한다.

뱀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하다. 64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76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8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을 해야 한다.

말 54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78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90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좀더 신중하게.

양 55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67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하라. 7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1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원숭이 56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데려오니 흡족하다. 68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80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92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닭 57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가 오는 격. 69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81년생 성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93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

개 5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7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결과를 얻어 마음이 평화로운 날. 82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4년생 두드려서 열릴 문이면 힘껏 두드려라.

돼지 59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7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하나 의외의 복병을 주의. 8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95년생 속내를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5	3				
		5			2	9		
1			4			5		6
		8	6				9	
	5			1	3		7	
8				2		7		
	3		8					
		4			6		5	

	1						5	
			9		5			
		9		7		8		
			2	9	4			
		7				2		
3			8		7			9
1		2	3		9	6		4
			4		1			
	6						1	

스도쿠 정답

8	5	3	6	7	9	4	1	2
9	2	6	1	4	8	7	3	5
1	4	7	5	2	3	9	6	8
4	7	8	3	1	2	6	5	9
2	9	1	7	5	6	8	4	3
6	3	5	9	8	4	2	7	1
3	1	9	2	6	7	5	8	4
5	8	4	8	9	1	3	2	6
7	6	2	4	3	5	1	9	7

2	1	3	6	4	8	9	5	7
8	7	6	9	2	5	1	4	3
5	4	9	1	7	3	8	2	6
6	8	1	2	9	4	7	3	5
4	9	7	5	3	6	2	8	1
7	3	8	4	6	1	5	9	2
1	5	2	3	8	9	6	4	9
3	2	5	8	1	7	4	6	9
9	6	4	7	5	2	3	1	8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그들이 성공한 이유

친구 두 사람이 함께 상담을 온 적이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업종은 다르지만 둘 다 장사를 시작했고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한 사람은 편재가 용신이면서 편재가 정재보다 강한 사주이다. 활동력이 좋고 모험을 즐기는 편이어서 도전적인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한다. 또 한사람은 정관격으로 수(水)가 정관인 사주이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뛰어나다. 지모가 탁월한 점이 돋보이는데 상공업이나 수산업 등으로 나가면 길한 사주이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길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지금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장사에서 기량을 발휘하며 매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둘 다 장사가 잘 되지만 차이는 있었다. 한 친구가 3의 매출을 올린다면 다른 친구는 5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는 두 사람이 상담을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알 수 있었다. 매출이 많은 친구는 매달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 매달 그렇게 숫자에 신경 쓰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하다보니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하버드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 생각났다. 하버드에서 MBA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추적연구를 한 적이 있다. 재학 중일 때 3%의 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면서 생활했다. 그 외의 학생들은 목표나 전략이 부족했다. 그들이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소득 차이를 조사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3%의 학생들은 다른 97%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 10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목표와 구체적 계획이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든다. 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재물이나 명예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숱하게 많다. 그 차이의 가장 큰 요소는 자기의 상황을 운용하는 능력이다. 거기에 더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으로 뒷받침 하는 것 역시 사람의 인생길을 다르게 만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4호